

올 상반기 IT수출 573억2000만 달러 기록

전년 대비 7.8% '증가' ...6월은 9.1% 증가한 99억1000만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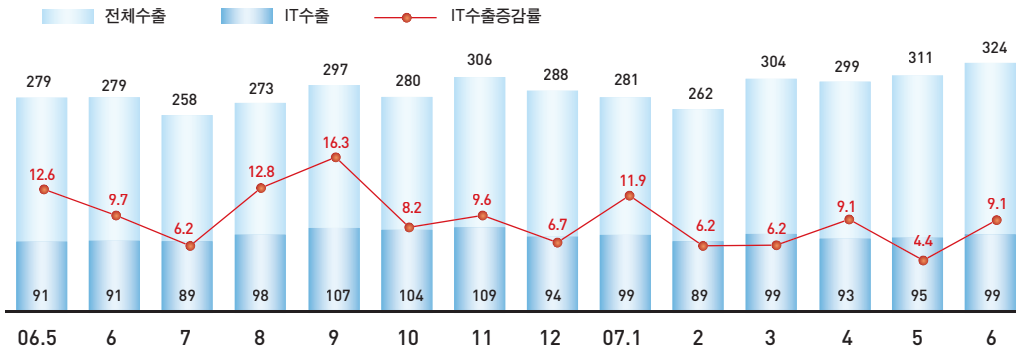
● ○ ● 올 상반기 IT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.8% 늘어난 573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.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IT수출이 IT제품의 가격 및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·휴대폰 등 주요 품목의 성장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7.8% 증가한 573억2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.

정통부 측은 “상반기 IT수출이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 하락, 글로벌 경쟁심화, 환율 하락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3.9%, 반도체 12.9%, 패널 20.1% 등 주요 품목의 성장주도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”고 설명했다.

●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<단위: 억 달러, %: 전년대비>

구 분	IT 산업		전체산업	
	'07.6'	'07.1~6'	'07.6'	'07.1~6'
수 출	99.1	573.2	323.9	1,781.5
증감률(%)	9.1	7.8	15.9	14.7
수 입	50.5	306.0	284.5	1,697.5
증감률(%)	3.1	6.7	9.3	13.7
수 지	48.6	267.2	39.5	84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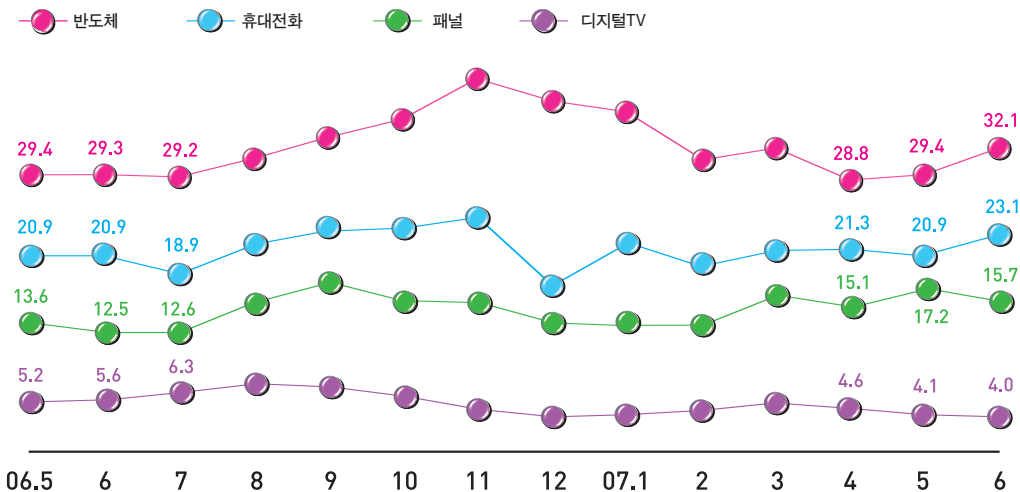
● 최근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 추이 <단위: 억 달러, %>



한편, IT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6.7% 증가한 306억 달러를 기록, IT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267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산업 수지흑자인 84억 달러를 견인했다.

품목별로는 반도체, 패널 등 부품이 IT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휴대폰과 모니터·프린터 등 정보 기기 수출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.

●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<단위 : 억 달러>



휴대폰 수출, 3.9% 늘어난 128억4000만 달러 기록

부분품을 포함한 휴대폰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.9% 증가한 12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. 미국 등 선진시장의 프리미엄 제품이 21.2% 늘어났으며, 중국(홍콩 포함) 20.2%, 중동 47.0%, 러시아 385.8% 등 신흥시장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. 특히, 올 6월에는 10.6% 증가한 23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간기준으로는 최고 실적인 지난해 11월 24억8000만 달러 이후 최고치를 달성해 하반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.

● 휴대폰(부분품 포함) 수출 추이 <단위 : 억 달러, % : 전년대비>

구분	'07.1	2	3	4	5	6	1-6
휴대폰	22.1	19.8	21.2	21.3	20.9	23.1	128.4
(부분품 포함, %)	(2.3)	(Δ1.9)	(Δ3.3)	(18.5)	(Δ0.3)	(10.6)	(3.9)
부분품	6.8	6.3	7.0	7.4	7.3	7.3	42.2
(%)	(14.4)	(5.6)	(1.0)	(23.9)	(17.9)	(13.3)	(12.4)

반도체 수출 12.9% 증가한 189억7000만 달러

반도체 수출은 12.9% 증가한 18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, D램은 올해 들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계속되면서 월별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, 지난해 상반기 대비 92.1% 증가한 7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견조하게 전체 반도체 수출을 견인했다.

한편, 낸드플래시는 계속되는 가격하락으로 24.8% 감소한 12.2억 달러를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, 지난 3월부터 가격이 소폭 반등하면서 6월 이후에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된 모습을 보여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.

● 반도체 수출 추이 <단위 : 억 달러, % : 전년대비>

구분	'07.1	2	3	4	5	6	1~6
반도체 (%)	36.1 (31.2)	31.0 (20.2)	32.2 (13.1)	28.8 (4.8)	29.4 (Δ0.1)	32.1 (9.5)	189.7 (12.9)
메모리 (%)	22.4 (81.5)	19.2 (70.7)	18.1 (45.9)	16.1 (34.9)	16.5 (23.1)	18.6 (43.8)	110.8 (49.3)
D램 (%)	16.7 (208.3)	13.3 (159.8)	11.7 (98.6)	9.7 (60.0)	9.1 (31.7)	9.8 (36.5)	70.3 (92.1)
낸드 (%)	2.2 (Δ37.1)	1.8 (Δ36.6)	1.7 (Δ39.7)	1.7 (Δ27.1)	2.1 (Δ17.3)	2.8 (20.1)	12.2 (Δ24.8)

하반기 특수 겨냥한 패널 수출 늘어 20.1% 증가 = 패널 수출은 가격하락세의 진정과 하반기 특수를 겨냥한 세트 업체의 TV용 패널 주문 증가, 원도 비스타와 맞물린 대형 모니터용 패널 특수가 지속돼 지난해 동기대비 20.1% 증가한 9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.

모니터용 패널 가격은 19인치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41달러를 기록했던 것이 지난 5월 13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월 142달러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.

반면, 정보기기 수출은 1.2% 감소한 7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. 하지만 올해 들어 모니터 4.1%, 저장장치 8.7%, 프린터 293.4% 등 주변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12%의 감소폭보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● 패널 수출 추이 <단위 : 억 달러, % : 전년대비>

구분	'07.1	2	3	4	5	6	1~6
패널 (%)	13.7 (16.7)	13.3 (18.4)	16.7 (21.4)	15.1 (12.0)	17.2 (26.4)	15.7 (25.5)	91.8 (20.1)

중국 수출 11.5% 늘어 수출 주도

지역별로는 중국(홍콩 포함)이 206억3000만 달러, EU 94억7000만 달러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, 미국이 휴대폰 수출 호조로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(17.9%)를 보이고 있다. 일본은 지난해 10월 이후 43.8%나 감소한 패널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 상반기 6.6% 하락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.

6월 IT수출은 휴대폰 23억1000만 달러(10.6%), 반도체 32억2000만 달러(9.5%), 패널 15.7억 달러(25.5%) 등 주요 품목이 고른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.1% 증가한 9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.

정통부 측은 “하반기 IT수출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3G 단말기 등 교체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선진 시장과 중·저가폰 위주 신흥 시장의 꾸준한 성장,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의 특수에 따른 반도체와 패널 등 IT부품 수요 증가와 가격하락세 진정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다만, 추가 환율 하락 여부,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정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”고 전했다. [K]

●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<단위 : 억 달러>

